

젊은 대학, 큰 대학, 열린 대학 “대구대학교”

윤 덕 홍 | 대구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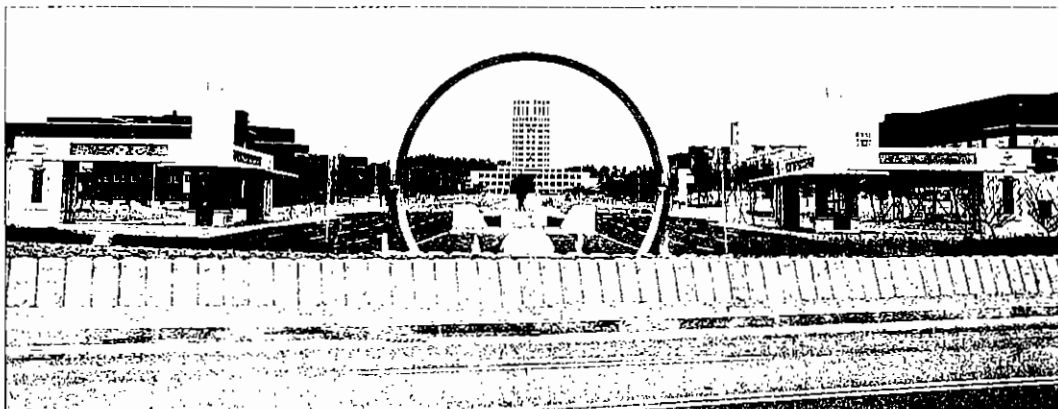
자랑스런 건학 이념

대구대학교는 1956년에 장애인 특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사랑, 빛, 자유의 건학이념으로 소외 받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故)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다. 누구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지 않던 시기의 선각자적 결단이었다.

1981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점자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전국의 맹인들이 받아 보는 점자책이 그곳에서 발행되고 있다. 1,85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대규모 기숙사 단지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기숙사 시설도 갖추었다. 현재 28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다. 맹도건의 안내를 받아 강의실로

들어서는 시각 장애 학생들의 모습도 대구대학교에 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뿐만 아니라, 교내의 모든 건물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2학기부터는 학생처 내에 장애 학생 지원 서비스부가 신설되어, 300여 장애 학생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갈수록 척박해져 가는 시대에 사랑, 빛, 자유의 숭고한 건학 이념은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대학교는 특수 교육, 재활 과학, 사회 복지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특수 교육 및 재활 분야는 지방 사립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인문 사회 분야 BK21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젊은 대학, 큰 대학, 열린 대학

앞서 말한 대구대학교의 건학 이념, 즉 장애인 사랑과 만인 복지의 사상은 대구대학교를 <큰 대학>으로 키우는 초석이 되고 있다. '큰 뜻을 품어라'는 교훈(校訓)도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스케일과 깊이를 보여 준다. 한 마디로 큰 뜻과 큰 사상을 갖춘 큰 인물을 길러 내고자 함이다. 갈수록 기능과 잠재주가 대접받고 인문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받으며, 사람들이 타산적으로 변해 가는 세상에, 인간 사랑의 정신과 사회 봉사의 철학을 가진 큰 사람을 길러 내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큰 대학>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대학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만이 큰 것은 아니다. 대구대학교는 전국 최대의 캠퍼스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잘 정돈된 캠퍼스 부지만 100만 평이다. 캠퍼스 앞으로는 대구대학교가 수면관리권을 갖는 60만 평의 문천지 호수가 출렁이고, 뒤로는 금호강이 끼고 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자연 친화 캠퍼스는 어느새 지역 주민의 문화 휴식 공간이 되어 있다.

대구대학교는 또한 <젊은 대학>이다. 44년의 전통을 가진 경륜 있는 대학이면서도, 특유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에 종합 대학으로 승격된 뒤, 최신 학문을 연마한 젊은 교수님들을 대거 영입한 덕이다. 교수의 연령층만 젊은 것이 아니다.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신예의 젊은 교수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대구대학교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또 있다. 학생 중심의 대학 운영이기 때문이다. 교수와 직원들이 학생의 편의를 위해 늘 배려하고 연구한다. 정보화 우수 대학이란 사실도 젊은 대학의 또다른 비결



이다. 대구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 한글 검색 엔진인 <까치네>를 개발하여 명성을 떨친 바 있다. 1996년말에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완성하고, 1997년말에는 종합 학사 행정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1997년에는 교육부와 동아일보의 대학 평가에서 <정보화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최첨단 정보 통신망을 통해 대학의 정책에 대한 비평, 코멘트, 의견 등을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대학 특유의 활력과 지성을 키워가고 있다.

대구대학교의 또하나의 자랑은 명실상부하게 <열린 대학>이라는 사실이다. 대구대학교는 첨단 기 자재와 시설 그리고 천혜의 캠퍼스 환경을 지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풍지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과 전국에서 각종 학회, 연수회, 수련회 등을 위해 찾는 캠퍼스이기도 하다. 금년 7, 8월 여름 방학 기간에 각종 행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다녀간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교사, 지역 주민들이 약 2만여 명에 달했다.

캠퍼스와 시설들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교수들이 지역의 행정계와 언론계는 물론이

요, 다양한 NGO들에서 적극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사나 NGO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

그외에도 대구대학교는 민주 행정과 투명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먼저 지방 사립 대학들 가운데서는 흔하지 않게 된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 차례의 총장 직선을 거쳐오면서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금은 매우 모범적인 총장 선거를 정착시켰다.

교수 협의회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학생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만나 학교 발전 방안이나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지난 1학기 중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한 학생들, 학부제 도입을 반대한 학생들과 심야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물의나 접거 농성 없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민주화된 대구대학교의 강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교내 종합 학사 행정 전산망 역시 대학 구성원 간의 수평적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학교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활발한 온라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

최근의 기록 행진

자랑스런 건학 이념과 전통 그리고 종합 대학으로 승격된 뒤 20년간 키워 온 대구대학교의 민주적이고 인문학적이며 열린, 그러면서도 젊고 진취적인 문화는 최근 다양한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 중요한 예들만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기술 보육 사업(T.B.I) 지원 대학
- 2) 산학연 전국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대학(1999)-230여 업체와 산학 협력
- 3) 경북테크노파크 참여 대학
- 4) '98 중소기업 기술 교육 혁신 교육 과정 선정 대학(1998)
- 5)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운영 대학
- 6) 지방 대학 특성화 대학
- 7) 정보화 우수 대학(교육부와 동아일보 평가, 1997)
- 8) 가상 대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 9) 전국 최초의 재한 의원 개원·운영 대학
- 10) 전국 최초의 장애인 전용 기숙사 운영 대학
- 11) 지방 사립 대학 중 유일하게 인문 사회 분야 BK21 사업 선정 대학(1999)
- 12)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운영 대학(1999)
- 13) 사범대학 전국 최우수 평가(1998) 및 교사 임용 고시 전국 최다 합격(1999) 대학
- 14) '99 대학 종합 평가 종합 우수 대학 선정 대학(교육부, 2000)

지역과 함께 밝은 미래로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자만과 안주는 늘 물락의 길이었음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으며, 교육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형의 요구도 한 해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전 가족이 함께 미래를 주시하면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내적 구조와 문화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단단한 각오와 슬기가 아니고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주변 환경과 대학의 위기 상황을, 대학 가족 모두가 함께 직시하면서 탄탄한 미래

를 열어 갈 자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학은 학문 공동체요, 전문가 집단이다. 대학의 성쇠는 구성원의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마련이다. 지난 수년 동안 대학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던 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금 대구대학교는 밖의 위기에 당당하게 대응해 가고 있다. 흔히 이야기되는 2003년의 위기도 절반은 넘겼다는 안팎의 평가도 그래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